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http://www.kihf.or.kr	**보도자료**	모든가족 행복파트너

보도일시	2026. 11. 4.(수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온라인 : 2025. 11. 3.(화) 오전 7:00 이후		총 2쪽
배포일자	2026. 11. 3.(화)	담당부서	인식개선사업부
담당부서장	허지은(02-3479-7730)	담 당 자	김주연(02-3479-7736)

'한국건강가정진흥원, 가족차별·편견해소 모니터링 성과보고회 개최… 지표 기반 우수 언론사 선정

-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손잡고 신입기자 대상 가족다양성 보도 교육 -

□ 한국건강가정진흥원(이사장 박구연)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고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'가족차별·편견해소 언론 모니터링 성과보고회'를 추진한다.

○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차별에 대한 언론 모니터링을 위해 '26년 상반기,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족차별 편견에 대한 언론 모니터링 지표를 마련하였다. 이를 토대로 언론매체(25개, 빅카인즈 기준 전국·경제 일간지)의 사회·문화면 온라인 기사(1년, 2025.6.1.~2026.5.31.)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.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의회를 거쳐, 편견없는 시각으로 가족다양성 보도에 앞장선 우수 언론사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선정하였다.

○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11월 18일 본원에서 '가족차별·편견해소 모니터링 성과보고회'를 개최하고, 가족에 대한 편견없는 모범을 보인 4개 우수 언론 매체에 공로패를 전달할 예정이다.

○ 또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향후 '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족 언어' 확대를

위해 보도 단계에서부터 가족관련 차별적 용어가 자연스럽게 걸러질 수 있도록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력하여 수습기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한다.

○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박구연이사장은 “언론은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포용적 문화를 확산시키는 가장 강력한 공공의 거울”이라며 “성과보고회 및 수습기자 교육을 계기로 ‘정상가족’이라는 단일한 틀을 넘어 모든 형태의 가족이 존중받는 미디어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, 우리 원은 앞으로도 가족 정책의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언론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주도하고, 일상 속 차별적 언어와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”고 강조하며, 가족차별 및 편견없는 보도에 힘써준 언론들에게 감사를 전했다.

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